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8. 3. ~ 8. 9.

# 전남농업정보

45  
VOL

## 주간 기상전망

### 농축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고추·대파 재배 동향 및 축산물 과채 가격 동향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고흥군, 2기작 벼 수확 '대풍' 예감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국산 포도 중국 수출, 과수원 등록해야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청정 미나리 재배기술 연구

### 정책동향

전남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 단체 선정

### 고소득 농업사례

전남농기원 창업지원 아로니아로 귀농  
성공한 청년농부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4~12mm)보다 적음

###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2015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산보다 감소
- 3~6월 대파 정식면적 7% 감소

###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 축산물 : 한육우, 돼지

- 한육우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6,000~17,500원/지육kg 전망
- 돼 지 :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하나 수요 감소로 7월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kg당 4,900~5,200원으로 전망

#### ▶ 과 채 : 오이, 고추

- 오 이 : 취청오이 7월 가격은 출하량 적어 작년보다 높은 상품 50개에 1만 2천~1만 5천원 전망
- 고 추 : 청양계꽃고추 7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상품 10kg에 3만~3만 5천원 전망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전라닷컴, 무등일보)

- ▶ 고흥군, 2기작 벼 수확 '대풍' 예감
- ▶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단호박 농장 팜파티 개최
- ▶ 화순 천연발효식초 6차산업 전남도 대표 선정
- ▶ 해남군, 토종작물 체험장 개장 인기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국산 포도 중국 수출, 과수원 등록해야
- ▶ 쌀가공식품, 수출 재도약 발판 다진다
- ▶ 정남진장홍농협 표고버섯 홍콩 첫 직수출
- ▶ 농식품 대일 수출 재도약 '매진'

###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전남농업기술원, 청정 미나리 재배기술 연구
- ▶ 벼 이삭 켜 때 발생하는 주요 병해와 관리 요령은?
- ▶ 인삼에 치명적 피해, 뿌리썩음병 진단기술 국내 최초 개발
- ▶ 농기계, 보관만 잘해도 돈 번다!

###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전남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 단체 선정
- ▶ 8월 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 농업정책자금금리 최저 1.8%로 '반쪽 인하'
- ▶ 농관원, 직불제 이행점점으로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미국의 옥수수 작황 상승한 반면 대두는 변화없으며 밀은 하락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수요일 급락에 염가매수와 숏커버링으로 만회하며 보합 마감
  - 옥수수 선물가격은 9월물 기술적 매수세로 하락한 수요일 가격을 만회하며 상승 마감
  - 대두 선물가격은 현금시장에서의 빠듯한 공급에 가격 상승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상승 마감

###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 ▶ 전남농기원 창업지원 아로니아로 귀농 성공한 청년농부
- ▶ 낱알 하나도 생명체...해남 간척지서 친환경 우렁이쌀로 승부

##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2016년 로컬푸드직매장 설립지원 사업자 모집공고

- 신청자격 : 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선정규모 : 전국 35개소 내외
- 지원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관련 컨설팅 비용, 농가조직화 교육비
  - 보조 100%,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 주 관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접수기한 : '15. 8. 25.(화)까지(접수처 : aT광주전남지역본부)

### ▶ '15년산 보리·밀 보급종 종자신청 접수

- 기 간 : '15. 7. 23. ~ 8. 27.
- 신청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품종 : 큰알보리1호, 흰찰쌀보리, 영양보리, 백중밀 등 9개 품종 2,289.5톤
- 종자공급 : 9. 11. ~ 10. 10.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공급



##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8. 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8/3)	전주 (7/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9,000	142,000	195,467	↓ 2.1	↓ 28.9
	고구마(밤)	10kg	37,400	33,800	37,680	30,400	33,277	↑ 23.0	↑ 12.4
	감자(수미)	20kg	25,200	25,600	26,720	23,000	24,213	↑ 9.6	↑ 4.1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570	580	700	650	650	↓ 12.3	↓ 12.3
	양배추	10kg	6,900	6,600	6,800	5,375	6,517	↑ 28.4	↑ 5.9
	오이(다다기계통)	10kg	30,000	23,667	18,266	30,722	25,345	↓ 2.4	↑ 18.4
	애호박	8kg	24,400	15,000	12,840	13,450	15,577	↑ 81.4	↑ 56.6
	토마토	10kg	18,200	19,600	17,280	14,600	21,287	↑ 24.7	↓ 14.5
	무(봄)	20kg	15,200	16,400	16,800	10,750	16,817	↑ 41.4	↓ 9.6
	당근	20kg	31,000	31,000	30,760	36,050	33,583	↓ 14.0	↓ 7.7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80,000	777,333	↑ 20.6	↑ 5.5
	풋고추	10kg	25,600	28,000	33,720	33,650	38,910	↓ 23.9	↓ 34.2
	마늘(난지)	10kg	47,000	47,600	48,200	33,650	36,557	↑ 39.7	↑ 28.6
	양파	20kg	26,600	24,600	21,760	9,200	15,470	↑ 189.1	↑ 71.9
	대파	1kg	2,050	1,990	2,254	1,080	1,372	↑ 89.8	↑ 49.4
	파프리카	5kg	12,200	12,200	14,840	15,650	18,220	↓ 22.0	↓ 33.0
	방울토마토	5kg	11,600	12,200	11,640	9,150	14,303	↑ 26.8	↓ 18.9
	수박	1개	14,400	14,200	13,760	14,100	16,780	↑ 2.1	↓ 14.2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6,800	66,800	67,800	92,000	81,600	↓ 27.4	↓ 18.1
	배(신고)	15kg	39,600	39,600	39,600	83,000	65,750	↓ 52.3	↓ 39.8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8/3)	전주 (7/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53,400	-	↓ 3.9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0,000	350,200	↓ 4.5	↑ 19.9
	새송이버섯	2kg	7,600	7,600	8,240	7,450	7,778	↑ 2.0	↓ 2.3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055	7,074	6,924	6,450	6,127	↑ 9.4	↑ 15.1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74	2,305	2,166	2,030	1,911	↑ 2.2	↑ 8.5
	닭고기	1kg	5,110	4,929	5,002	5,195	5,740	↓ 1.6	↓ 11.0
	계란(특란)	10개	5,588	5,793	5,713	6,014	5,392	↓ 7.1	↑ 3.6
	우유	1리터	2,548	2,548	2,546	2,549	2,307	-	↑ 10.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8. 3.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60 천원	5,251 천원	4,430 천원	↑ 4.0	↑ 23.3
	거세	6,770 "	6,710 "	5,505 "	↑ 0.9	↑ 23.0
송아지 (6~7월)	암	2,809 "	2,686 "	1,986 "	↑ 4.6	↑ 41.4
	수	3,388 "	3,173 "	2,766 "	↑ 6.8	↑ 22.5
육우(600kg)		3,318 "	3,100 "	2,737 "	↑ 7.0	↑ 21.2
젖소수송아지(7일령)		275 "	267 "	17 "	↑ 3.0	↑ 1517.6
돼지(110kg)		443 "	483 "	418 "	↓ 8.3	↑ 6.0
육계(원/kg)		1,317 원	1,407 원	1,446 원	↓ 6.4	↓ 8.9
계란(원/특란10개)		1,205 원	1,217 원	1,397 원	↓ 1.0	↓ 13.7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342 원	-	↓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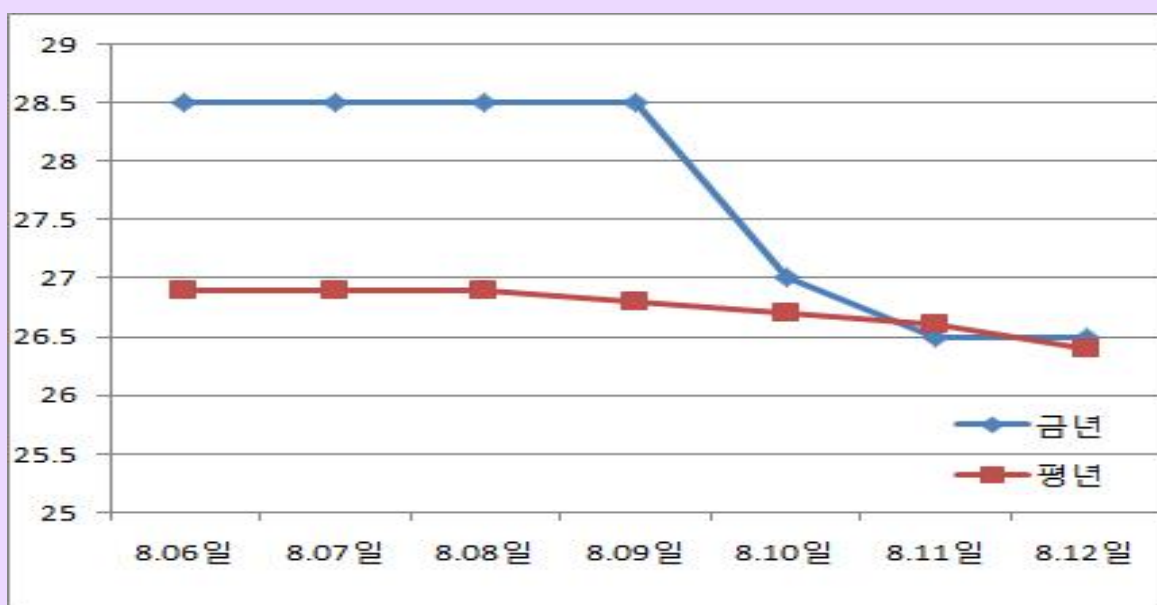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27.7	26.7	1.0	30.9	30.7	0.1	24.6	23.8	-0.2	5.6
8. 06.(목)	28.5	26.9	1.6	32	31	1	25	23.9	-1.1	4.2
8. 07.(금)	28.5	26.9	1.6	32	31	1	25	23.9	-1.1	4.1
8. 08.(토)	28.5	26.9	1.6	32	30.9	1.1	25	23.9	-1.1	5.5
8. 09.(일)	28.5	26.8	1.7	32	30.7	1.3	25	23.8	1.2	5.6
8. 10.(월)	27	26.7	0.3	30	30.7	-0.7	24	23.8	0.2	5.3
8. 11.(화)	26.5	26.6	-0.1	29	30.5	-1.5	24	23.7	0.3	6.8
8. 12.(수)	26.5	26.4	0.1	29	30.3	-1.3	24	23.7	0.3	7.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 2. 농산물 재배 동향

### 고추·대파 재배 동향

#### □ 2015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산보다 감소

- 2015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산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2014년산보다 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충청이 7%, 영남이 6%, 호남이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5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2014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4%, 22% 감소한 3만 4,600ha 내외로 추정된다.

#### □ 3~6월 대파 정식면적 7% 감소

- 3~6월 대파 정식면적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름·가을대파 주산지인 경기·강원지역은 당근, 감자로 작목이 전환되어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7~11월 출하량 감소가 예상된다.
- 겨울대파 주산지인 진도·신안군은 대파 재배를 선호하는 농가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9월 정식의향은 최근 대파가격 상승으로 봄대파 출하가 완료된 포전에서 대파 재정식 의향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 증가할 전망이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축 산 물** : 한육우, 돼지

○ ( 한육우 )

- 한우고기 공급 감소로 7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16,000~17,500원/지육kg 전망

○ ( 돼 지 )

-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하나 수요 감소로 7월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kg 당 4,900~5,200원으로 전망

**과 채** : 오이, 고추

○ ( 오 이 )

- 취청오이 7월 가격은 출하량 적어 작년보다 높은 상품 50개에 1만 2천~1만 5천원 전망

○ ( 고 추 )

- 청양계핏고추 7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상품 10kg에 3만~3만 5천원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 고흥군, 2기작 벼 수확 '대풍' 예감

- 오는 28일 청백찰벼 한 번 더 심어 11월 중순 수확 -

- 고흥군(군수 박병중)이 지난 24일 전국 최초로 규모화된 노지에서 2기작 벼를 수확했다.
- 군은 동강면 죽암농장 2기작 재배단지에서 고흥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벼 베기를 실시해 대풍을 예감하고 있다.
- 이번 수확한 벼는 지난 3월 20일경 53,000㎡ 규모에 포트육묘 이앙기로 심은 극조생종 “기라라 397” 품종으로 수확량은 31톤(조곡 10a당 590kg)이 예상되며, 농협과 이마트 전국 판매장을 통해 “김세기 햅쌀”로 판매될 예정이다.
- 군은 이번에 수확한 2기작 벼는 이앙 직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저온현상과 출수 후 기온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 수확이 지연되었지만, 생육후기(5~6월) 기온과 일조시간이 많아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10% 정도 증수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수확한 논에 오는 28일경 극조생종 청백찰벼를 한 번 더 심어 11월 중순경 수확 예정이며, 두 번째 모내기를 위해 지난 6월 30일 볍씨를 파종하여 육묘를 준비하고 있다.
- 죽암농장 김종욱 대표는 “조생종 벼는 수확 시기가 빨라 추석(9.27) 이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햅쌀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을 전망”이라면서 “내년에는 우리지역 우수경영체에 매뉴얼을 확대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한 단계 높여 「비전5000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군 관계자는 “2기작 벼 시범단지 이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공 요인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조생종 포트육묘의 저온 및 고온 적응성과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밀도 등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닷컴

## ■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단호박 농장 팜파티 개최

- 단호박 요리시연과 민속놀이 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임광섭)는 지난 25일 손불면 북성리에 위치한 이리네농장(최정일, 귀농4년차)에서 인천 소비자를 초청해 “포근포근 밤호박”이라는 주제로 팜파티를 열었다.
- 팜파티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농촌문화의 체험을 느끼면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에 축제의 의미를 결합한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함평군에서는 5번째로 개최되었다.
- 이날 팜파티에서는 단호박 요리시연과 민속놀이 체험장, 꽃차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리네 농장을 방문한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또한 각종 체험을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로 이어진 6차 산업의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 최일도(인천거주) 씨는 “직접 농장주를 만나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함께 둘러보니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자녀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했다”며 함평군 홍보 마니아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 스스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팜파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가족단위의 체험교육에 중점을 두어 고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함평 미디어전남

## ■ 화순 천연발효식초 6차산업 전남도 대표 선정

- 전남도는 23일 천연발효식초를 생산하는 화순의 발효햇살협동조합이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경진대회 전남도 대표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 전남에서는 발효햇살협동조합과 함께 총 8개 조합이 선정됐으며, 현재 대한민국 대표 선정을 위한 농식품부 심사를 받고 있다.
- 농업의 1~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농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 발효햇살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8월 창립해 전통으로 발효시킨 '초록은 햇살식초'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다.
- 김화진 발효햇살협동조합 상무이사는 "햇살마을은 주변에 조광조 유배지와 천불천탑의 운주사, 고인돌공원 등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6차 산업을 발전시킬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화순 지역이 천연발효식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무등일보

## ■ 해남군, 토종작물 체험장 개장 인기

- 고천암호 둔치에 5만5천㎡ 규모 색다른 볼거리 각광 -
- 해남군이 최초로 토종작물 체험장을 조성해 본격 개장해 관광객들과 가족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 22일 군에 따르면 휴가철을 맞아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토종체험장은 지난 4월 삼산천 하류인 삼산 웅암에서 화산 금풍교간 3km 구간 고천암호 둔치에 조성됐다. 규모만도 5만5천㎡에 달한다.

- 지금 체험장을 찾으면 꽃이 피고 다양한 열매가 맺은 토종작물들을 만날 수 있다.
- 웅암 입구에서 해창교 방향 300m 구간에 조성한 박과작물 하우스에 색동호박과 조롱박, 여주, 수세미가 텃밭터널을 만들며 주렁주렁 열매를 늘어뜨리고 있다.
- 박과터널 주변으로는 국화와 목화가 꽃을 피웠다.
- 토종작물 58종이 식재된 전시포(2천㎡)에도 해바라기가 꽃피고 토마토와 수박이 열매를 맺었다. 전시포에는 천문동과 지황, 개뽕쑥, 씀바귀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토종작물이 다채롭게 식재되어 자라고 있다.
- 이와 함께 고구마와 목화, 메밀은 수확체험도 진행할 계획이며, 메밀꽃이 피는 9월중에는 작은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군은 토종체험장이 아이들은 물론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농심을 키우는 학습장이자 농촌의 색다른 볼거리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 최창대 담당은 “작물이 번성하는 시기인 만큼 각종 꽃과 열매를 관찰할 수 있다”며 “토종작물을 직접 관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토종작물 체험장을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무등일보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 국산 포도 중국 수출, 과수원 등록해야

- 국산 포도 중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금년산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2015. 7. 28.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하였다.
- 이에 따라, 중국으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소정의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를 작성,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8월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속 농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조직 또는 선과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지정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 <지정신청서 첨부자료>

- ① 재배지 목록(참여 농가명, 전화번호, 재배지 지번, 재배면적, 재배 주수, 생산예상량 포함)
- ② 생산단지 지도(1/25,000)
- ③ 선과장과 저장시설의 약도 및 평면도, 주요 시설 및 장비 목록
- ④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 사본(인증을 받은 경우)
- ⑤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서 사본(지정을 받은 경우)

- 또한,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재배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현지를 실사하여

고시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중국 수출재배 단지로 최종 등록하여 관리한다.

- 국산 포도는 지난 해 미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및 호주 등지로 약 583톤이 수출되었는데, 앞으로 중국 수출이 추가되면 포도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포도 중국 수출을 위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되면 수출 시작 전에 중국 검역관이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에 대해서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출농가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쌀가공식품, 수출 재도약 발판 다진다

- 막걸리 중심에서 쌀과자·떡볶이 등 수출품목 다변화 -

- 쌀 가공식품 수출이 최근 막걸리 위주에서 쌀과자·떡볶이 등 품목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 국내 쌀 가공식품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최근 쌀 가공식품 수출이 그동안 막걸리 중심에서 한류 인기에 따른 한식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높아지면서, 떡볶이 등 다품목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많은 쌀 가공업체들이 수출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수출 품목 및 수출국 다변화로 이어지면서 수출 동력은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 조상현 쌀가공식품협회 팀장은 “이전까지 수출 품목은 막걸리에 지나치게 치중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품목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쌀과자 수출 비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는 미국에서 쌀과자가 웰빙식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조 팀장은 “업체들이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 쪽을 적극 활성화하려는 자구 노력을 펼치고 있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수출 품목이 다품목으로 확대되고 수출국도 많아지면서 물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도 수출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조은지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쌀이 관세화됐기 때문에 기존 쌀 등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가공식품 등을 포함해 중장기 차원의 쌀 수출 확대 방안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 사무관은 이어 “쌀 소비 촉진이라는 차원에서도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며,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생존 전략으로 수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쌀 가공식품 수출은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업계 입장에선 내수 경기 침체와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짜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수출 분야가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수출 활성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 신성범 맘모스제과 대표는 “쌀과자는 다른 과자처럼 첨가물이나 MSG가 들어가지 않아 세계적으로 웰빙 스낵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는 “특히 쌀 재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 가공식품 수출은 업계와 국가 모두 이익인 만큼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다 폭넓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박태우 하얀햇살 대표는 “한류 영향으로 떡볶이를 선호하는 해외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우리 농식품이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 떡 분야도 당분간 수출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수출 물량 및 수출시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 정남진장홍농협 표고버섯 홍콩 첫 직수출

- 정남진장홍농협(조합장 강경일)에서는 장홍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을 홍콩 수출로 향후 표고버섯 마케팅전략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명실공히 표고버섯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 강경일 조합장은 경제사업 활성화에 주력하여 유치지점에서 표고버섯산지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생산한 표고버섯을 매년 약 30~40억원 정도 APC에서 매입하여 소포장 및 수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농협의 고유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 이번 표고버섯 수출은 물량은 2,100kg로 소포장 상품으로 금액은 13만불(약140백만원)으로 부산항에서 선적되어 홍콩으로 입항된다.
- 정남진장홍농협 농산물유통센터(센터장 김용경)에서 수 차례 홍콩식품박람회에 출품하여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여 정남진장홍농협과 표고버섯 노지재배 현장을 방문하고 장홍표고버섯 노지재배 우수성을 적극홍보하여 이룬 성과이며 올해 건표고버섯으로 18톤에 70만불을 수출할 예정이다

- 장흥표고버섯은 2006년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정남진장흥의 대표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 600여 농가에서 전국 건표고버섯시장의 48%를 생산하고 있다.
- 정남진장흥농협은 2009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개설하여 표고버섯이 5회 대통령 명절 선물로 선정되어 표고버섯 홍보에 주력하고 표고버섯 대중화를 위하여 요리책자를 발간하는 등 표고버섯 수출을 통하여 장흥표고버섯 특화에 주력하고 있다
- 또한 장흥에서 생산되는 배, 파프리카, 대봉에 대해서도 특화상품으로 판매에 주력하고있어 어렵고 힘든 농업,농촌에 농산물부가 가치창출로 인한 희망의 밑물시대를 열어 갈 것으로 기대 된다.

\* 출처 : 브레이크뉴스

## ■ 농식품 대일 수출 재도약 '매진'

- aT, 日간사이 핵심 유통업체·바이어 상담회 개최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과 연계해 지난 15일 일본 오사카 닛코호텔에서 간사이 지역의 핵심 유통업체를 비롯해 벤더 바이어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농식품 상담회 ‘Taste of K-Food in Osaka 2015’를 개최했다.
- 이날 AEON, UNY 등 일본 전국권 대형유통업체와 미츠비시식품, 이토츠키식품, 일본악세스 등 대형 벤더의 핵심 바이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식품 취급 확대를 위한 활발한 거래 상담이 이뤄졌다.
- 또한 2부에서 대형유통업체 및 벤더 바이어, 한국식품 수입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최근 일본 소비자 구매성향 등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간담회도 갖었다.
- 이번 상담회에서는 김치, 인삼, 고추장, 막걸리, 삼계탕 등 기존의

- 대일 수출품목 외에도 참외, 생들기름, 라이스밀크, 유자분말 등 신규 수출품목이 다수 출전해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 aT 오사카지사에서는 올해 하반기 벤티 전시회, 판촉행사 등을 통해 바이어 관심품목이 각 유통업체에 입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aT 김재수 사장은 “최근 엔저와 한일관계 영향으로 한국식품의 대일 수출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aT의 바이어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우리 농식품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도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상담회는 최근 엔저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대일 농식품 수출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식품 수출의 재도약을 위해 기획됐다.

\* 출처 : 전업농신문



## 6.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 전남농업기술원, 청정 미나리 재배기술 연구

- 미나리는 우리나라 원산으로 향긋한 맛이 있는 계절 채소다. 무기질, 비타민 A·C, 섬유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겨울에 수확되는 미나리는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A와 C의 보급원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 적합한 전통채소다.
- 특히 한방에서는 청혈, 해독, 신경통, 변비, 고혈압 효과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증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러한 장점 뒤에는 간질충, 중금속 등 물논에서 재배법의 일부 문제점도 야기되면서 생으로 먹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 그리고 물논 재배는 추운 겨울철 물논에서 작업해야 하는 악성노동을 해결해 줄 인력이 농업인의 노령화 및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들로 대체하고 있다. 또 재배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이 이러한 기존재배의 위생적인 문제, 물논에서 작업하는 악성노동 등 미나리 재배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3년 계획으로 1차 실험부터 3차 시험재배까지 총 3회에 걸쳐 청정미나리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다.
- 주요 연구는 밭 재배 및 수경재배 기술을 비교 연구하고, 연차적

으로 밭 재배분야에서 재식간격, 비료량, 줄기연화방법, 수경재배 분야에서는 적정양액조성, 양액농도, 질산염 감소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까지 1차 연구가 완료된 상태이며, 1차 연구 결과에서는 각 재배방법에 따른 수량 및 품질 부분에서 생육 30일 기준 10a당 물논재배 3.7톤, 수경재배 3.6톤, 밭 재배 0.6톤 생산이 가능한 걸로 조사되었다.
- 또 총 무게 중 줄기비율은 수경재배 44%, 관행재배 31%, 밭 재배 29% 순으로 수경재배가 다른 재배방법에 줄기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 줄기의 단단한 정도에서는 수경재배가 관행재배와 비슷한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 아울러 품질면에서는 밭 재배를 제외한 물논재배와 수경재배는 비슷한 수준의 수량성과 품질 특성을 나타내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에서는 수경재배가 물논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가장 적합하게 조사되었다.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연구사는 “수경재배의 경우 일반 물논재배와 비슷한 수준의 수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근접해 있는 반면 밭 재배의 경우 아직 많은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농업인 입장에서는 작업편이성이 높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보급에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벼 이삭 쫄 때 발생하는 주요 병해와 관리 요령은?

- 농촌진흥청, 이삭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 등 예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이삭이 쫄 때 발생하는 벼 병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병해에 대한 효율적 방제를 당부했다.
- 앞서 벼 병해충 방제를 제때했던 2012년에는 약 2조 1,000억 원, 2013년에는 약 1조 6,000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 벼의 이삭이 패는 시기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는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등으로, 일단 발생하면 수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힌다.
- 이삭도열병은 벼의 이삭 목, 이삭 줄기, 이삭의 작은 가지, 벼 알에 발생해 이삭의 발병 정도가 바로 피해로 직결된다. 병균이 침입하는 시기는 이삭이 쫄 후 10일~20일까지며, 병 발생 조건에 맞는 날씨가 계속될 경우, 30일~40일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 흰잎마름병은 이삭이 패는 시기 앞뒤로 발생하는데, 잎의 끝 부분부터 하얗게 마르며 잎이 죽는다. 7월 평균 기온이 22℃~24℃로 낮거나 7월 강수량이 200mm 이상으로 많을 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불 때 병 발생이 특히 많아진다.
- 세균벼알마름병은 이삭이 패고 꽃이 피는 시기 앞뒤로 30℃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거나 30mm 내외로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을수록 발생이 많다. 벼 알에만 증상이 나타난다.
- 이삭누룩병은 벼 알에서만 발생하며, 초기에는 벼 알의 표면이 황녹색을 나타내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꽃이 필 때 병원균이 벼꽃을 통해 침입한다.

- 이러한 병들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 이삭도열병은 유제, 수화제, 액상수화제 등을 사용할 경우 필지당 벼 이삭이 2개~3개 보일 때 1차 방제를 하고, 1차 방제 후 5일째~7일째 2차 방제를 해야 한다.
- 흰잎마름병은 발병 상습지의 경우 반드시 병 발생 전에 방제를 해야 하고, 세균벼알마름병은 이삭 패는 시기 앞뒤로 적용 약제를 2회 뿌려 이삭도열병과 동시에 방제한다.
- 이삭누룩병은 벼꽃을 통해 침입하므로 이삭이 패기 직전에 전용 약제를 뿌려 방제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심홍식 연구관은 “기후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은 효율적 방제가 어려워 피해가 크다.”라며, “후기에 발생하는 병해는 한 번 발병하면 피해가 크므로 예방적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인삼에 치명적 피해, 뿌리썩음병 진단기술 국내 최초 개발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인삼 재배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뿌리썩음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 도 농기원은 뿌리썩음병의 주요 원인균인 실린드로카폰 데스트럭턴스(*Cylindrocarpon destructans*)에 대한 유전자 정량 진단기술(real-time PCR)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인삼 뿌리썩음병은 묘삼부터 6년생까지 모두 발생하나 특히 4년생 이상의 고년근에서 많이 발생하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심할 경우 폐농까지 해야 하는 무서운 토양전염성 곰팡이 병이다.
- 또한 병원균(*Cylindrocarpon destructans*)이 토양 속에서 포자를 형성하여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인삼을 수확한 땅에서는 10년 간 인삼재배를 다시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작장해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인삼농가가 땅을 옮겨가며 지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도 농기원에 따르면 이 병원균만 선택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배지가 없고, 기존 유전자 분석법으로도 존재 유무 정도만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어느 정도의 밀도가 있는지의 정량 분석법이 개발되지 않아 그 동안 이 병을 정복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왔다.
- 도 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는 이 병원균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매진한 끝에 병원균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증폭하는 최신 유전자 정량 진단법 개발에 성공했다.
- 유전자 정량 진단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병원균의 유무만 판정이 가능했으며, 판정하는 데에도 1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인삼농가에도움이 되지 않았다.
- 새로 개발된 진단법은 2시간 이내에 병원균의 상대적 밀도 진단까지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기술이다. 소득자원연구소는 금년 중으로 토양 중 극미량의 병원균 밀도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검출한계를 높이고 뿌리썩음병 발생과의 상관관계까지 밝혀 인삼을 심기 전에 미리 병 발생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그 동안 인삼농가가 뿌리썩음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인삼을 재배할 토양이 병원균으로부터 안전한지를 미리 알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인삼농가들의 숙

원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내년부터 연구소에서 개발한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재배적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농가들에게 미리 제공해 뿌리썩음병으로부터 안전한 재배지에서 경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기인삼 품질과 수량을 높이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기도 인삼 재배는 현재 2,987ha로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인삼 재배농가는 5,200여 농가이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 ■ 농기계, 보관만 잘해도 돈 번다!

- ‘찾아가는 농기계교육’ 통해 여름철 보관요령 홍보 -

- 농기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만큼 수명도 길어지고 제 기능도 충분히 발휘한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집중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기상재해로 농기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보관과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농업기술원은 장마철이 거의 끝나가긴 해도 장마 이후 오는 기상 재해가 더 많기 때문에 사용 후 보관 중인 농기계 관리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농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농기계교육’을 통해 농기계 점검 정비와 사용 후 보관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 여름철 농기계 보관·관리와 침수 농기계 정비 요령은 다음과 같다.
  - ▶ 농기계 보관 전에는 빗물이나 습기 등으로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해둔다. ▶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저지대의 농기계는 안전한 창고





로 이동해 보관한다.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할 경우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이나 방수포장으로 덮어주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둔다.

만약 농기계 보관 중에 침수가 됐을 때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농기계가 물에 잠긴 이후 아무 조치 없이 시동을 걸면 엔진이 손상되거나 전기 누전 또는 합선으로 배선이 탈 수 있으므로 기종을 불문하고 절대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

▶침수된 농기계는 먼저 깨끗한 물로 잘 닦아 이물질を 없애고, 물기가 마르면 기름칠을 한다. 그리고 주요 부위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리 또는 교환한다. ▶엔진·기어오일 등 각종 윤활유와 연료는 모두 빼고 새 것으로 바꾼다. 각 주유구에 윤활유와 그리스 등을 넣어주고, 공기청정기, 필터류, 손상된 전기배선도 새 것으로 바꾼다. ▶배터리가 있는 농기계는 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을 분리하고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은 뒤 배터리 단자에 그리스를 칠한다. 완전히 방전됐다면 바꿔준다. ▶엔진 내부에 흙탕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농기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엔진을 분해·수리한다. ▶침수된 농기계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정비해야 성능을 유지하고 과다한 수리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 한편 여름철 농기계 장기 보관 및 정비 기술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http://www.nongsaro.go.kr)) ‘농자재→농기계→이용 정보 또는 농기계 관리’에 접속하면 볼 수 있다.

○ 도농업기술원 이수근 과장은 “농기계도 자동차와 비슷할 정도로 고가의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많다.”면서 “장기 보관 시 조금만 신경 써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고, 경비 절감도 가능하다.”고 여름철 농기계 보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 7. 정책동향

### ◆ 전남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 단체 선정

- 강진 탐진들(주) 등 4곳 8월 개최 전국 경진대회 출전 -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1회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단체로 강진 ‘탐진들(주)’, ‘광양시농산물수출물류센터’, 구례 ‘지리산과하나되기영농법인’, 나주 ‘제일회’ 등 4개소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진은 8월 개최 예정이다.
- 전라남도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기준에 적합하게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7개 단체를 시군에서 추천 받아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실시해 선정했다.
- 탐진들(주)과 광양시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통해 안전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파프리카를 일본·대만에 수출하고 있다.
- 지리산과하나되기영농법인은 산수유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아 깨끗한 마을, 안전한 농산물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 직거래 및 체험활동으로 농가 소득이 향상됐다. 제일회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배를 생산해 도매시장에서 최고가 낙찰을 받고 있다.
- 박균조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국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다”며 “친환경농산물인증과 함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확대에 힘써 전남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경진대회 입상작에 대해서는 대상 1점 500만 원, 금상 2점 각 300만 원, 은상 3점 각 150만 원, 동상 4점 각 100만 원 등 총 10점에 2천여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 한편 2014년 전남지역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면적은 4천 921ha였다. 전라남도는 올해 7천ha(전년대비 42% 증가) 인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 8월 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였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

「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비율 등) 개정(6.22일 공포)

\*\* ① “정액지원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28% 지원 / ② “정액지원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 기준점수 보험료의 28%) / ③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미지원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7.29일 공포)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정액지원(89,760원)

### 《 차등지원 구간별 세대수 분포 》

부과점수	가입자 비율 (%)	세대수 (세대)	월지원액 조정(원) (당초→변경)
1,801점 미만	95.0	345,412	(현행 동일)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4.0	14,078	89,760~124,600 → 89,760
2,501점 이상	1.0	3,630	124,650~631,970 → 0

□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 하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개정(6.22일 공포)

○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 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으며, 7.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 \* 농어민 중 재산 300만원~450만원 구간세대 보험료 체납현황 : 573세대, 558백만원('14년도)
-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 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정책자금금리 최저 1.8%로 ‘반쪽 인하’

- 당정, 농축산경영·농업종합자금 변동금리 1.8%, 고정금리 2.5%로
- 농업계 “1%로 내리고 변동금리 오를 경우 대비해 대책 필요” 촉구 -
- 3%인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의 금리가 1.8%(변동금리)로 인하되고 축산경영자금 금리도 4%에서 2.8%(변동금리)로 낮춰진다. 그러나 이 같은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1%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결정이라며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농업 및 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 인하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농어민이 농어업정책자금 대출 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3~4%인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농어



업인은 1.8%, 조합 등 법인은 2.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1.8%(변동금리)나 2.5%(고정금리)로, 축산경영자금 금리의 경우 조합 등 법인은 4%에서 2.8%(변동금리) 또는 3%(고정금리)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되고, 이 결과 최대 837억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농어업정책자금 금리 인하폭이 당초 요구사항이었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3년 5월 13일 4%에서 2015년 6월 11일에 1.5%로 하락한 가운데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도 2003년 5월 6.84%에서 2015년 5월 2.96%로 낮아졌는데,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계속 3~4%를 유지했었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줄곧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할 것을 요구해왔던 것.
-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일정부분 인하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긴 하나 농민들이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1%로 내리라’는 주장과는 거리감이 있는 결정으로 이 정도 금리를 낮추는 것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긴 어렵다”며 “1%로 더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농연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동금리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변동금리 인상에 따른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금리를 낮췄다고 생색은 내고 있지만 변동금리가 올랐을 때는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 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으로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 동계 밭농업·경관보전 직불금 46억원 부담수령 차단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지난 4.1.부터 6.15.까지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 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작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하여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하여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하여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기존의 농지면적 등 경영체 기본정보를 맞춤형농정 추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소득, 유통·판매 등)까지 확대하고 직불금 신청도 통합

○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는 신청농가(26,762호, 12,530ha)의 직불금 신청 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작물재배, 농지이용현황 등)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농가 9,563호(4,693ha)를 추출하여 해당 작물(26개 품목) 재배, 실경작 및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 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직불금 신청내용이 불일치 한 경우

① 경영체 DB (휴·폐경) ↔ 직불금 신청내용 (작물 재배)

② 경영체 DB (26개 품목 외 작물 재배) ↔ 직불금 신청내용 (26개 품목 재배)

○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농가 8,991호(11,250ha) 전체에 대하여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 하였다.

□ 조사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9.7%인 3,147ha(직불금 46억원\* 상당)가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하였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 부적합신청 : 1,644ha(6억원)

\* 경관보전직불제 부적합신청 : 1,503ha(40억원)

○ 주요 부적합 원인을 살펴보면,

- ① 밭농업직불제는 휴·폐경농지 신청(45.1%), 비대상 작물 재배(30.0%), 타인경작 농지 신청(11.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 ② 경관보전직불제는 필지 집단화\*기준 미충족 및 보존기간\*\* 미준수 (55.4%), 미재배(27.5%)순으로 나타났다.

\* 집단화 :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가 연접해 있는 상태

\*\* 보존기간 : 경관작물을 재배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기간( ~5.15.까지)

□ 이번 조사결과, 전년 동기 대비 부적합농지 확인 비율이 6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경영체 DB 정보가 직불제 이행점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 부적합농지 확인비율 : ('14.동계) 12.1% → ('15.동계) 19.7

\* 부당수령 방지 금액 : ('14.동계) 2,079ha / 32억원 → ('15.동계) 3,147 / 46

□ 농관원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또한, 7. 22.부터 10. 15.까지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및 조건불리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행점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8. 해외 농업정보

### ◆ 미국의 옥수수 작황 상승한 반면 대두는 변화없으며 밀은 하락

작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산 옥수수 작황은 최근 강우중단으로 3주래 처음으로 상승한 반면 대두는 지난주 대비 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두과종이 아직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겨울밀 및 봄밀의 작황은 하락한 반면 적색경질 겨울밀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수확진행이 최고라고 한다. 최대 옥수수 생산지역인 18개 주의 옥수수 작황은 69%가 좋음/아주좋음이며 이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한편 대두는 63%가 좋음/아주좋음이며 이는 5년평균인 65%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대두과종은 전국적으로 일요일 기준 96% 완료되었으며 이는 6월의 습한 기후로 인해 정상적인 속도보다 뒤쳐진 상태이다. 과거 대두과종은 7월이면 완료되었었다. 이에 대해 RJ O'Brien의 고위 애널리스트 Rich Feltes는 “예상보다 이상적인 옥수수 및 대두작황과 다음주의 지속적인 곡물 작황개선 전망으로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고 언급하며 “여름 중순에도 이상적인 작황이 계속된다면 곡물 가격은 전형적으로 하방압력을 받을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Feltes는 뒤쳐진 대두과종은 대두 선물가격에 일부 지지요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두농가는 3.4백만 에이커에 대한 과종을 완료했으며 이는 대체로 미주리, 일리노이, 캔자스 지역이다. 한편 일요일 기준 겨울밀 작황은 40%가 좋음/아주좋음으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습기관련 질병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오하이오 작물 보고서는 “도복(lodging), 적척병(scab), 보미톡신(vomitoxin)이 밀의 주요 질병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겨울밀 수확은 시즌 내내 과도한 강우로 인해 뒤쳐졌었으나 지난주 건조한 기후로 회복되었다. 캔자스의 적색경질 겨울밀 수확은 79% 완료되었으며 이는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수준인 반면 오하이오의 적색연질 겨울밀 수확은 단지 13% 완료되어 평소 수확속도인 37%와 비교할 때 뒤쳐진 수준이다. 봄밀 작황 역시 70%가 좋음/아주좋음으로 지난주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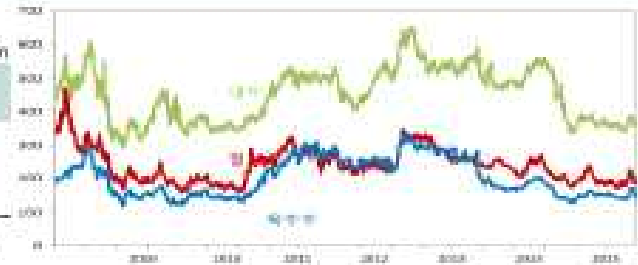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7. 31.(시카고 선물거래소)

## 수출수요 증진에 대두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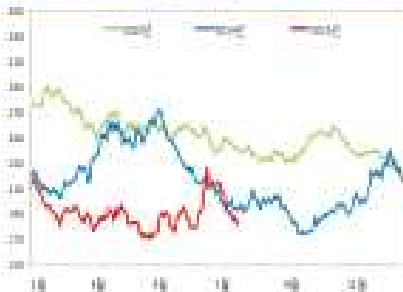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7.23)	전일대비	전월평균 (7.5.4)	2014 평균
밀	182.39	-	191	216
옥수수	146.92	▲1.5%	143	164
대두	363.83	▲0.7%	355	455

※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 적색연립밀(SSW), 옥수수: 대두의 단위(단), 옥수수: 9월물, 대두: 8월물) 계산가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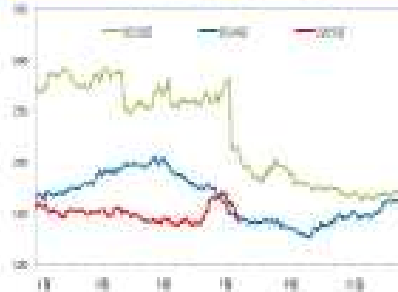


###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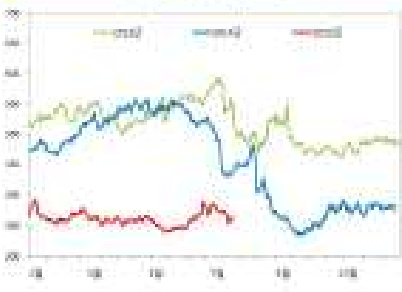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수요일 급락에 연가매수와 숏커버링으로 안정화하며 보합 마당. 과잉공급으로 이익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9월물 기술적 매수세로 하락한 수요일 가격을 안정화하며 상승 마감함. 2%하락한 수요일 연가매수가 기대되었으나, 옥수수 작황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부른한 것으로 전망.

###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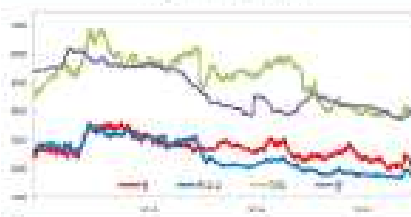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현물시장에서의 확실한 공급에 가격 상승이 한계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상승 마감함. 8월 건조한 기후가 예보되어 있어 수확량이 다소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 수요 억제로 가격이 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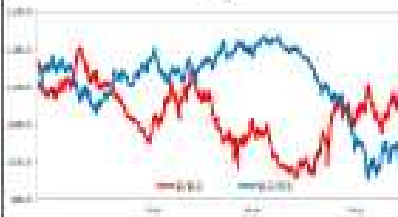
### 관련동향

- 지속적인 밀 수확 공급 및 우호 날씨,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가격 하락.
-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및 공급과잉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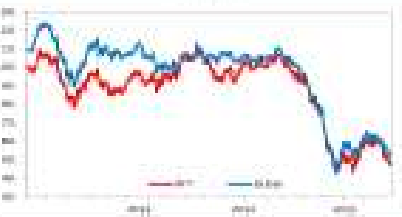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환율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203	▼3.3%		원/달러	1157.9	▼0.9%
	옥수수	169	▼1.7%		달러/유로	1.0987	▼0.7%
	대두	396	▲0.8%		WTI	48.52	▼0.6%
	쌀	388	-		Dubai	52.53	▲1.3%

※ 1) 밀(US SSW Grade), 옥수수(US S7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de B), WTI(뉴욕), Dubai(인도)

2) 기준일은 '15.7.29수출가격', '15.7.30환율', '15.7.3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시장, 한국농림, 한국석유공사)의 일일치로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9. 고소득 농업사례



### ■ 전남농기원 창업지원 아로니아로 귀농 성공한 청년농부

- 장성 ‘아로니아인’ 농장 한상필 대표...가공제품 개발 -
- 유럽과 미국에서는 ‘블랙초크베리(Black Chokeberry)’이고, 유럽의 왕족들이 먹었다 해 ‘킹스베리’로 알려진 아로니아 농사로 귀농에 성공한 청년이 있다.
- 장성에 터를 잡은 ‘아로니아인’ 농장 한상필(31) 대표. 한 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에서 추진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피부 및 눈건강, 면역증대 등을 위해 건강 보조 식품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아로니아 홍초를 개발했다.
- 1ha의 밭에서 제초제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아로니아를 생산해 무농약 인증을 취득한 열매만을 직접 가공, 기존 식초보다 산도와 맛이 뛰어난 홍초 제품과 프리미엄급 의미를 담은 ‘아로초’ 브랜드도 함께 개발했다.
- 이렇게 개발한 ‘아로초’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거래 유통을 한다는 계획이다.
- 대학에서 호텔경영을 전공하고,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는 늘 자연과 함께 살고 싶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틈틈이 귀농해 선택할 작목을 고민했었고, 최근에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베리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로니아를 알게 됐고, 2012년 귀농했다.
- 그러나 한 대표에게 아로니아 농사는 도전이고 모험이었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목이다 보니 정보 수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생과는 수확 후 3~4일이 지나면 급속 냉동을 통해





산화·변질을 방지해야 하는데, 첫 수확 후 부주의하게 보관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일도 경험했다. 또한,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차별화 시킬 것인지도 관건이었다.


- 한 대표는 2014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업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할 수 있었다. 과수 특성상 단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리기는 힘들지만 올해 1억 매출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앞으로 그는 아로니아를 활용한 잼, 액상차, 건조과일 등 추가상품을 개발하고, 희석하지 않고 바로 마실 수 있는(Ready to eat) 음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 한 대표는 29일 “지금은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지역 틈새 소득작목으로 규모화해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투데이광주

## ■ 낱알 하나도 생명체...해남 간척지서 친환경 우렁이쌀로 승부

- 14ha서 친환경농 실천...올해 무논점파로 생산비·인건비 절약 -
- 전일반적으로 간척지 쌀은 밥맛이 좋다. 청정 해역의 퇴적 유기물과 무기질이 풍부한 갯벌에서 생산돼 낱알이 크고 투명도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환경 농사법으로 생산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쌀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서 논농사 14ha를 짓고 있는 김지원(25)대표.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사꾼이다.

- 김 대표는 초창기 재배 기술 부족으로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다.
- 특히 그는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생활을 하다 3년전 귀농해 아버지를 도와 친환경 왕우렁이를 이용한 농법을 실천, 유기농 퇴비 농법을 실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다.
-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4-H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2012년 해남군 4-H회 정보부장, 2013년 해남군 4-H 오락부장, 2014년 전남도 4-H연합회 오락부장을 역임하면서 4-H 교육과 행사, 기획 추진 등 과제를 이수했다.
- 김 대표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농사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며 "나같이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은 도시생활과는 다른 점이 많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귀농을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 올해 처음 무논점파농법을 시작한 그는 "여름 내내 우렁이가 먹지 못하는 거친 풀을 일일이 손으로 솟아줄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농사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해남군은 못자리 없는 벼농사로 각광받고 있는 벼 무논점파 재배면적을 확대했다.
- 군은 벼 직파재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800ha에서 벼 무논점파재배를 하고 있다.
- 이는 지난해 1천20ha보다 80% 가량 늘어난 면적으로, 화산면 흑석리 단지 등 23개소 500여ha에 신규단지를 조성하고 벼 무논점



과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5억7천만원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무논점파기와 파종동시에 비료를 뿌릴 수 있는 측조시비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김 대표는 “벼 무논점파 측조시비 재배는 파종기를 이용해 점파 재배로 입모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파종과 동시 시비로 초기생육이 우수하고, 체계적인 잡초방제로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며 “적정한 깊이의 골에 볍씨가 점파됨으로써 뿌리 활착이 좋으며, 벼 쓰러짐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 그는 “기술센터서 기계이앙을 했을 때와 비교해서도 모를 키우고 모내기 하는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35%의 노동력이 절감되는 반면 수량성과 쌀 품질은 이앙재배 대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농가의 관심사인 생산비 절감을 ha당 100만원 가량으로 예측할 경우 올해 해남에서는 무논점파 재배를 통해 18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해남군은 지난 2009부터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보급해 올해 해남군 전체 벼 재배면적의 9%까지 확대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30%인 4천ha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력은 줄이고 농가소득은 높일 수 있는 벼 무논점파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 대표는 “앞으로 무논점파 농사도 늘릴 계획이며, 누룽지와 쌀과자 등 가공 쪽으로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 김 대표는 농부가 흘린 땀방울만큼 땅은 정직하게 보답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농사는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준비를 잘 했어도 지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 그는“저 같은 경우는 부모의 농사기반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귀농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다”며 “시골이나 도시나 일하는 건 다 똑같다. 업종이 다를 뿐이지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도태되기 마련이니, 시골이나 도시나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 외엔 부농의 성공비결은 없다”고 강조했다.
- 김 대표는 젊은 귀농인들에게도 조언을 잊지 않았다.
- "귀농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도시에서의 버릇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라며 낯알하나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성공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2016년 로컬푸드직매장 설립지원 사업자 모집공고

- 신청자격 : 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선정규모 : 전국 35개소 내외
- 지원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관련 컨설팅 비용, 농가조직화 교육비
  - 보조 100%,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 주 관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접수기한 : '15. 8. 25.(화)까지(접수처 : aT광주전남지역본부)

### ◆ '15년산 보리·밀 보급종 종자신청 접수

- 기 간 : '15. 7. 23. ~ 8. 27.
- 신청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품종 : 큰알보리1호, 흰찰쌀보리, 영양보리, 백중밀 등 9개 품종 2,289.5톤
- 종자공급 : 9. 11. ~ 10. 10.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공급

주간

전남농업정보

45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